"문화전당·상무지구 국제화 시범지역으로"

광주 외국인관광객 73%↑ …7대도시중 최고

시민 대토론회 "지역민 국제화가 우선돼야"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광주의 국제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항과 역·터미널 등 교통거점지역과 상무지구, 문화전당주변 등 관광거점지역을 국제화 시범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의 지속가능한 국제성장과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실천방안 및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화를 위한 광주시민 대토론회'가 15일 광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광주은행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염방열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지난해 광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만8000명으로 1년 전인 2009년의 13만2000명에 비해 73%인 9만6000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증가율 2위를 차지한 대전은 21.4%, 3위인 인천은 18.4%에 그쳤다.

이와 관련, 안종수 호남대학교 교수는 '광주 국제화를 위한 시범지역 운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국제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친화적인 시범지역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항·역·터미널 등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활용하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지하철 노선을 활용해 지역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는 '국제화 시범코스' 그리고 음식점과 쇼핑센터, 호텔 등이 주로 위치한 문화전당·충장로 주변 및 상무지구 주변 등을 '국제화 시범구역'으로 각각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들 시범지역에서는 ▲외국인 존중 및 차별금지 ▲각종 정보 안내서나 표지판에 한·중·영·일어 등 4개 국어 병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공 그림문자, 숫자 활용 ▲통일된 외국어 메뉴판 비치 ▲24시간 관광안내소 및 전자제품 충전소, 인터넷 이용 시설 구축 ▲단체, 업소 간 협의체 구성 등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진 광주매일신문사장은 '세계 속의 당당한 광주시민되기'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시가 민주인권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국제화, 즉 '내부의 국제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조발표를 한 윤장현 광주국제교류센터이사장은 "광주의 국제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당당한 지구촌 시민이라는 자각이 중요하며, 지역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친구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난 2009년 화재로 대웅전 등이 소실돼 복원공사가 진행중인 여수 향일암 전경.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에는 공사가 끝날 전망이다. 〈여수시 제공〉

화마가 삼킨 여수 향일암 내달 복원 완료

연말연시 해맞이축제 재개

3년전 화재로 대웅전 등이 소실됐던 여수 향일암이 내달 완전히 복원될 전망이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원인 모를 불로 대웅전과 종각, 종무소 등이 모두 타버려 지난해 12월 복원공사에 착수한 향일암이 현재 대웅전, 종각, 종무소 등에 대한 복원이 거의 끝나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는 이달 중 주변정리가 끝나고 내달에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연말연시 해돋이와 해맞이 축제 등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문화재자료 40호인 향일암 복원공사에는 국비 1억원, 도비 5억6500만원, 시비 3억8500만원, 사찰부담 1억5000만원 등 모두 12억원이 들어갔다.

향일암은 지난 2009년 12월 20일 오전 0시 24분께 발생한 불로 대웅전(65.34㎡), 종각(16.76㎡), 종무소(16.63㎡)가 모두 타 당시 경찰이 불교에 대한 불만 세력 등의 방화 등에 초점을 맞춰 화인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원인을 찾는데 실패했다. 신라 선덕여왕때 원효대사가 지은 향일암은 국내 4대 관음 기도처이자 금오산 중턱 절벽 절경에 자리잡은 해맞이 명소로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해마다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전남도 5개 기업과 219억 투자협약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투자협약에 앞서 전시된 투자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신안메이드㈜, 참맛식품㈜ 등 친환경 농산물가공·스포츠산업 관련 5개 기업과 21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나주~ 무안 영산강변도로 만든다

2016년까지 2100억 투입…34㎞ 폭 9m

나주에서 무안을 잇는 영산강 강변도로가 만들어진다.

전남도는 15일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유적지와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주시 삼영동에서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까지 영산강 34㎞ 구간에 폭 9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2016년까지 2100억원을 투입한다.

3개 공구로 나눠 추진되며 1공구는 나주시 삼영동에서 다시면 죽산리까지, 2공구는 죽산리에서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까지, 3공구는 사창리에서 몽탄면 당호리까지이다.

우선, 올해는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해 용지 보상에 나서고 주요 구조물 공사를 벌이게 된다.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2005년 12월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계획에 포함돼 고시된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 허가를 거쳐 착공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의회 농기센터 행정사무감사 중단 사태

"과다한 수의계약·고의적 자료 누락 등 부실 심각"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5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과 고의적인 자료 누락 등의 이유로 감사를 중지했다.

시의회 산건위는 이날 오전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남발과 동일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무자격업자 수의계약 체결, 고의적인 자료 누락 등의 심각한 부실을 발견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산건위는 현장 실사 등 재감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관련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과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제출을 하도록 한 뒤 오는 21일 오후 2시 감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자료 누락이나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농업기술센터의 수의계약 건수는 지난 2009년 총 공사계약 11건 중 10건, 지난해에는 31건 중 29건, 올 해에는 5건 중 5건에 달했다. 전체 공사계약 47건 가운데 44건(93.6%)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다.

특정 업체의 경우 총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무면허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측은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재정의 조기집행,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면 '공직기강'서 계속

이밖에 농업기술센터 직원 B씨(6급)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07년부터 4년 동안 71억3000여만원의 규모의 꽃 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7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광주시에 비위사실이 통보됐다.

이에 대해 시청 한 공무원은 "잇단 비리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일부 비리 연루 공무원들로 인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만큼 조직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각종 비위사실과 관련해 징계를 당한 광주시 산하 공무원은 4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광주시는 5위를 차지해 전년도 1위에서 4단계 하락했다.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4년만에 열린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영·호남의 목소리를 담아낼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가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 등 영·호남지역 8개 광역자치단체로 이뤄진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는 내년 1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08년 마지막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만이다.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998년 6월 처음으로 구성된 뒤 모두 10차례 열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번 협의회는 특히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이 치러지는 시기에 열리는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전남이장단 공공비축미 수매업무 거부 선언

광주·전남지역 이장단이 '공공 비축미' 수매관련 업무 거부에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이장단 소속 농민 130명은 15일 전남도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비축미 제도 폐지를 통한 쌀값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장단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공공 비축미를 활용해서 쌀값을 잡고, 수매시기에는 우선 지급금을 턱없이 낮게 책정해 벼값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제도 폐지후 국가수매제를 도입하고, 벼값은 최소 6만원(40kg)이상 보장하고 100만t 이상 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장단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장단 2차 선언은 다음주에 시·군별로 발표되며, 오는 26일 전남도청앞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농민대회로 취합해 전남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채용공고

기업 홍보, 판로개척 등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아데크(www.aliotv.kr)에서 회사와 함께 미래를 열어갈 참신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구분	모집부문	인 원	자 격 요 건
경력	웹디자이너	1 명	포토샵, 플래시, 일러스트, HTML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신입·경력	영 업	약간명	영업활동에 관심있으신분
	경 리	1 명	경리, 회계 업무가능자

2. 공동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나이 무관)
나. 웹디자이너 및 경리직은 여자에 한하며, 영업직은 남, 여 모두 지원 가능
다.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가. 이력서(희망연봉 기재) 나. 자기소개서
다. 포토폴리오(URL링크포함)

4. 서류접수

가. 기 간 : 2011. 11. 14(월) ~ 11. 22일(화)
나. 방 법 : E-mail 접수(support@aliotv.kr)

5. 전형절차

가. 서류 전형 나. 면접 전형

6. 기 타

가. 각 전형별 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문의사항 (주)아데크 인사팀 채용담당자(Tel : 062-223-5111)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光州日報와 함께하는 ADEC (주)아데크 ALIOTV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항고혈압 제제와 항고지혈증 제제의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수축기 혈압(SBP) 130mmHg/이완기 혈압(DBP) 80mmHg 이상,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Cholesterol) 100mg/dL 이상) 대상자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참여 기간

•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에 적합한 경우 약 12~14주간 총 4~5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면 8주 동안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제공되며, 정기적인 검진과 임상시험과 관련된 각종 혈액검사, 뇨검사, 심전도검사 및 소정의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시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문 의 처 : 010-4095-1850

제16회 전국 스피치 기능 경시 및 유치부·어린이 웅변 발표대회

◉ 일시 : 2011년 12월 18일(일요일) 오전 9시
◉ 장소 :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강당 (상무지구)
◉ 주최 : 한국웅변연설인중앙회
◉ 주관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쉽지도자과정)
◉ 후원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시상계획

상의종류	시 상 훈 격	수여인원	시 상 부 분	부상
전 체 대 상	국회의장상	1명	전체참가 연사중 가장 우수한 연사 1명	대형 은배 장학금
전체 최우수상	통일부장관상	2명	학생부(유치·초·중·고)와 대학일반부 중 가장 우수한 연사 각 1명씩	대형 은배 장학금
각 부 대 상	광주광역시장상 전라남도지사상	10명	유치부,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각 2명씩	대형 트로피 장학금
각부 최우수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전라남도교육감상	12명	유치부4명,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각 2명씩	중형 트로피 장학금
각부우수상	광주광역시의회의장상 전라남도의회의장상	24명	유치부8명,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각 4명씩	트로피 또는 시계 장학금
단 체 우 승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상	3팀	초등부1팀, 중고등부1팀, 대학일반부1팀	우승기 장학금

■원고내용 :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및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아래 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되 연제는 자유로 한다.
• 우리말 우리글의 뿌리를 알고 바로쓰기 위한 방안
• 그 외 유치부는 자유제 가능
■발표시간 : 유치부 2분, 초등부 3분, 중·고등부 4분, 대학·일반부 5분
■접수마감 : 2011년 12월 13일(화요일) 17:00
■접 수 처 : 503-2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42-2 (2층) 한국웅변연설인 중앙회 TEL (062)385-7997, FAX(062)528-1020, 010-5692-9998
■명예대회장 : 남 경 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대 회 장 : 김 종 열 (한국웅변연설인중앙회이사장, 고려인삼제품공사 대표)
■대회집행장위원장 : 한 상 택 (한국웅변연설중앙회 회장)
■심사위원 : 대통령수상자 및 관계기관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 (추후발표)

발목펌프 운동

신개발 편백나무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 운동봉이란?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목 디스크 예방과 치료 등)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아주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경침운동기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일건강이 개발한 특허제품 뿐 입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운동기구★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아파트용) 75,000원
» 편백 경침 겸용 운동봉(아파트용) 55,000원
» 경침 겸용 운동봉(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6-1 농협 : 601154-52-335334 서영섭